

# 범여 “李씨 거짓해명”... 검증고삐 진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17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과거 위장전입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사과한 것을 계기로 이 전 시장에 대한 검증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우리당은 이 전 시장과 관련해 8대 의혹을, 민주당은 6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발짝 더 나아가 이 전 시장의 대선후보 사퇴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우리당 서해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녀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했다는 해명은 석연치 않아 거짓해명 의혹을 낳고 있다”면서 “이 전 시장 자녀가 나왔다는 사립학교는 주소지와 상관 없이 추첨을 통해 입학이 결정되는 만큼 해명이 거짓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우리, ‘李 전 시장 8대 의혹’ 제기 민주당 “대선후보 사퇴하라” 공세

이구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자녀를 모두 귀족학교에 보내느라 혈안이 됐던 이 전 시장은 입으로 계속 서민 운운하는 위선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네 자녀의 위장전입을 한 후보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교육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 ▲충북 옥천 땅 투기 의혹 ▲현대 5층 빌딩 재산은

닉 의혹 ▲김유찬씨가 주장하는 위증 강요와 살해 협박, 도피자금 제공 의혹 ▲옵셔널벤처스(BBK후신) 주가 조작 의혹 ▲황제테니스와 테니스장 불법건축 사건 의혹 ▲정계천 개발 비리 의혹 ▲상암동 DMC 사기사건 연루의혹을 이 전 시장의 8대 의혹으로 제시했다.

우리당 대선주자 중 한명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측 신상엽 공보특보도 논평을 내고 “장상, 장대한 총리 지명자

가 한나라당이 제기한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했다”면서 “이 후보는 21번이나 귀족형 이사를 했고 한 전 총리는 결혼후 26번 생계형 이사를 했다. 법적, 도덕적으로 이 후보가 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범인도피 공모 공동정범, 5차례 위장전입, 육전땅 투기 의혹, 병역기피 의혹, 명의신탁 의혹,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및 의혹들만 봐도 이 후보의 과거는 불법과 부정부패의 종합전시장”이라며 “이 후보의 신화는 개발특혜의 신기루였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선 후보의 꿈을 접으라”고 촉구했다.



지지자들과 함께 인사 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선진평화연대’ 출범식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행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학규 大選 출정 공식화

‘선진평화연대’ 출범... 현직의원 60여명 대거 참석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7일 정치결사체 ‘선진평화연대’ 출범식과 함께 대선 출정을 선언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신당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선진평화연대’ 창립총회에서 “선진과 평화가 시대정신이며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라고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능한 민주화세력과 실용적 개혁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평화연대 상임 고문으로 추대된 손 전 지사는 “선진과 평화가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며 “유능한 민주화 세력과 실용적 개혁 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만2천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손 전 지사는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50년을 좌우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건강한 정치, 경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햇볕정책 계승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6·15 공동선언과 햇볕정책은 계승 발전돼야 한다”고 밝힌 손 지사는 “세계 경제를 하나로 잇는 평화 비즈니스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손 전 지사는 “개혁의 선봉장이 되기 위해 문민정부에서 정치에 뛰어든다고 한나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분투했다”며 지난날을 회고한 뒤 “하지만 한나라당을 바꾸겠다는 꿈은 허망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화를 쟁취했고, 결단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며 “민주세력이 통합하면 선진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정동영, 문희화, 신기남 의원 등 열린우리당 전·현직 의장들을 포함, 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李 “위장전입, 국민께 죄송” 박 “사과 미흡... 알팍한 전술”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한간호사회회 창립 84주년 기념 전국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알아봤더니 30년 전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된 것 같다. 어쩔만 저의 책임이니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

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일부나마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시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범여권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 등에서 제기한 주가조작 사건 연루설, 친인척과의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미리 ‘차단막’을 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전 시장 캠프도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시장은 주 민등록 초본상 1969년 이후 모두 24 차례 주소를 이전했으며, 이 가운데 3 차례는 주소지 지명이나 지번이 조례 등에 의해 변경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측은 17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과거 위장전입을 사과하고 한반도 대운하 관련 비판을 적극 반박하고 나선 데 대해 “미흡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내친김에 이 전 시장을 몰아붙이기 위한 공세를 강화했다. 박 전 대표측은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의혹 사과에 대해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운하 반박에 대해서 “검증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팍한 전락”이라고 치부하면서 이 전 시장측에 솜털 될

을 주지 않고 검증고삐를 바짝 죄졌다는 태세이다. 박 전 대표측 이해훈 공동대변인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 하느냐”면서 “그렇다면 위장전입 문제로 총리에서 낙마한 장상씨한테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가서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전 시장측이 자녀들의 사립 초등학교 입학에 위장전입의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주소지와 입학은 아무런 상관 없다”면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측 최경환 종합상황실장도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의식이 해소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팩트가 있는 것에 대해 그 남 탓이 아닐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광주·대구 등 10곳 내륙항구 개발”

李 전 시장 ‘한반도 대운하’ 관련 설명회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7일 자신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운하는 ‘대한민국 747 비전’(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경제강국)을 실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시내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대운하 설명회를 갖고 “대운하 사업은 더러워진 물, 말려진 강, 방치된 자연환경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대역사로, 한민족의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회견에서 “대운하가 건설되면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을 흐르는 물길이 이어지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거대한 수변생태 터전이 마련될 것”이라며 ▲수자원 확보 ▲물류비 절감과 대기오염 해소 방지 ▲내륙항구 도시 개발 ▲관광, 레저 단지 개발 ▲일자리 70만개 창출 등

의 5대 효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특히 내륙항 개발계획과 관련, “광주, 나주, 정읍, 대구, 구미, 밀양, 문경, 상주, 충주, 여주에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내륙 항구가 건설될 것”이라며 “광주항에서 자동차를 직접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한반도 대운하의 비전을 담은 최신 동영상도 공개됐다. /연합뉴스

## 민주·중도통합 합당 연기

우리당 탈당파 등 ‘중추협’ 신당 창당따라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제정하고 연석회의 성격인 ‘중도개혁세력대통합추진위원회(중추협)’를 구성, 오는 25일까지 중도개혁이 결집하는 신당 창당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중도통합개혁신당의 합당 일정은 당초 20일에서 27일로 일주일 가량 늦어지게 됐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김한길 중도개혁통합신당 대표는 17일 오전 회동을 갖고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 등 3자가 참여하는 중추협을 구성, 범여권 제정파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당 대표는 당초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양당간 합당을 승인할 통합수입기구 합동회의를 20일에서 27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홍석, 이낙연, 신중식 의원과 정경환 전 의원, 중도통합신당의 김낙순 의원, 중도개혁통합신당 이태파인 전병헌 의원, 열린우리당 2차 탈당파인 우상호, 임종서,

김부겸, 문학진, 정장선 의원 등 각 제정파 전·현직 의원 11명은 16일 저녁 회동을 갖고 중도개혁 대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 내용을 보고 받은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김한길 중도통합신당 대표는 다음날 전격 회동을 갖고 오는 25일까지 열린우리당 탈당파 등을 대거 수용하는 신당 창당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중도통합개혁신당은 오는 25일까지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을 합류하는 대로 수용하고 예정대로 27일 합당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개혁탈당 성격이 강한 일부 의원들이 합류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의치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7월 2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p><b>전액할부판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용/수입차/상용/특정/경비/산업차</li> <li>전차종 할부판매</li> <li>이전비/등록비/보험료포함 전액할부 (돈없이 차량구입)</li> <li>무이자10개월/대출이자 월 100만원당 4500-7500원</li> <li>무상S/S 5개월 5,000KM/1년 20,000KM</li> <li>당일출고/최상의 서비스(엔진오일/및 선오일/세탁/비)품목제공</li> <li>전국최대규모 매장 보유/국내최저차량 대량보유</li> </ul>	<p><b>내수/수출차량매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형승용/수입차/RV/승합/경차</li> <li>1톤~25톤화물차/덤프/크레인/포크레인</li> <li>1톤개인용달/4.5톤개별화물 급구</li> <li>고령차/신차 무조건매입</li> <li>당일 매입이전/현금 즉시 지급</li> <li>모든차량 구입즉시 이전/말소가능</li> </ul>	<p><b>위탁판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님의 차량금액을 소비자 가격으로 받기를 원하실 때</li> <li>위탁을 할 경우 고객님의 받고자 하는 가격에 10%를 계약금으로 지급</li> <li>계약기간은 1개월이내 만일 안팔리면 계약서 작성금액 전액지급</li> <li>만일 차량금액 전액지급안하면 계약금 10%포기/차량반환</li> <li>위탁차량은 팔리면 고객님의 차량 금액을 지불하고 이전서류받음</li> </ul>
---	---	--

(유)동해모터스 (주)나폴레옹무역상사 대표전화 062-651-6006, 010-8427-9997

###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